불보살님 보살핌 우리 삶에 늘 함께해

불교, K-드라마로 만나다

㉕ '미씽 : 그들이 있었다' 시즌1(2020) · 시즌2(2022)

생이 끝나면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삶과 죽음의 문제는 부처님의 출가 동기일 만큼 불교의 역사를 관통하는 화두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도 많은 스님들이 생사 해탈을 위해 출가한다.

보편적으로 알려진 불교의 사후관을 간략히 정리하면, 사람이 죽으면 중음신(中陰身)이 되어 49일을 지내는 동안, 살아 있을 때 했던 행동에 대해 시왕(十王)의 심판을 받는데 시왕의 판결에 따라 육도윤회가 결정된다고 한다.

이때 다음 생에는 좀 더 나은 삶을 살았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죽은 이를 위한 재를 지내는데 이것이 불교의 장례문화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49재다. 이번 생과 다음 생 사이의 중간지대같이 설정된 49일의 심판 기간을 보고 있으면 죽은 이와 산 사람 사이의 인연의 끈이 이어지는 마지막 시간이라는 생각이 든다.

다른 종교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다. 사후세계에 대한 표현 중에 '연옥(煉獄)'이라는 것이 있는데 지옥에 갈 만큼의 죄를 지은 것은 아니지만 아직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는 아닌 사람들이 죄를 '정화(淨化)'하는 곳이라고 한다. 불교의 49일과는 성격이 조금 다르지만, 삶과 죽음 사이의 중간지대라는 비슷한 역할을 한다.

드라마 '미씽 : 그들이 있었다'는 바로 이 삶과 죽음 사이의 중간지대를 소재로 하는 드라마다. 드라마의 배경이 되는 곳은 죽은 이들이 모여 사는 두온마을이라는 가상의 마을이다. 그런데 이 마을에 모여 있는 이들은 단순한 망자들이 아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목숨을 잃고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이들이다. 한마디로 실종자들의 영혼이 모인 마을인 셈이다. 이것이 이 드라마의 독특한 점이다.

2024년을 기준으로 한 해에 5만 건에 가까운 실종신고가 있는데 99% 이상은 1년 안에 발견된다고 한다. 하지만 여전히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장기 실종자가 7천 명 정도이며 그 중에 천 명 정도는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측된다는 통계가 있다. 드라마가 파고드는 것이 바로 이 대목이다. 실종된 채로 목숨을 잃었으나 어느 누구에게도 발견되지 않아 육신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죽은 이의 원통함, 그리고 육신을 찾지 못해 장사도 지내지 못하는 남겨진 가족의 피맺힌 한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불의를 참지 못하는 열혈 청년 김욱(배우 고수)은 최여나(배우 서은수)의 납치 장면을 목격하고 납치범들에게 쫓기다 장판석(배우 허준호)의 도움을 받는다. 우연히 들어서게 된 두온마을이 사실은 죽은 이들의 영혼이 살고 있는 곳임을 알게 된 김욱은 판석과 함께 그들의 시신을 찾아 실종된 이들의 한을 풀어 주는 일을 한다. 보통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세계인 두온마을. 김욱과 장판석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두온마을을 자유롭게 드나들며 망자들과 교류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지녔기 때문이다.

두온마을이 죽은 이들의 마을이라고 해서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귀신이나 서양의 뱀파이어 같은 공포스러운 모습으로 사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두온마을의 마을회관 역할을 하는 '카페 하와이' 안쪽 깊숙한 곳에 있는 문을 통해 마을에 오는데, 죽을 때 입고 있는 옷과 소지품을 그대로 가지고 온다. 또한 마을에 도착하면 자동으로 거주할 공간이 생기는데 이곳도 망자들의 기억을 토대로 생전의 공간 그대로 만들어진다. 한마디로 살아 있을 당시의 모습 그대로 삶을 이어 가다가 시신이 발견되면 망자도, 그들의 공간도 순식간에 마을에서 사라지는 것이다.

삶과 죽음 사이의 중간지대 소재 드라마
시즌2, 실종 아동 초점 보살핌 의미 강조
마을 주민 돕는 등장인물 보살 다름없어
현실 힘들어도 도움 주는 이들 주변 존재
조력자가 관음 · 지장보살임을 기억해야

이처럼 평범한 마을과 다를 바 없는 두온마을은 사방에 꽃이 넘쳐나는 곳이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꽤 많은 아이들이 천진난만하게 뛰어노는 곳으로 그려진다. 따라서 한 많은 사연이 가득한 슬픈 곳이 아니라 마치 평화롭고 행복한 정토세계처럼 느껴질 정도다.

생각만으로도 의식주가 저절로 해결되고 아무런 걱정 근심 없이 부처님 법대로 정진할 수 있는 곳, 불국정토. 정토에 중생들을 보살피는 불보살님이 계시듯 두온마을에는 100년 넘게 두온마을을 지키고 있는 토마스 차(배우 송건희)라는 인물이 있다. 그는 카페 하와이를 운영하면서 마을에 처음 도착한 사람에게는 마을에서 살아가는 법에 대해 안내를 하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살피며 실질적인 두온마을의 구심점 역할을 한다. 특히 토마스를 일제강점기 독립군과 관계된 인물로 설정함으로써 조상들이 후손들을 보살피고 있음을 은유적으로 드러낸다.

2년 후에 제작된 시즌2에서는 이런 점이 좀 더 두드러진다. 30년 전에 실종된 어머니를 두온마을에서 만나 어머니를 둘러싼 살인사건을 해결한 김욱과, 10년 동안 애타게 찾아 헤매던 딸의 시신을 마침내 찾게 된 장판석이 두온마을과 이별하면서 시즌1이 끝나는데, 시즌2에서는 다시 죽은 이들을 볼 수 있게 된 두 사람이 오일용(배우 김동휘)의 안내로 실종자들의 영혼이 모여서 살아가는 '3공단'이라는 또 다른 공간이 있음을 알게 된다.

폐공단의 모습을 한 외관과 달리 3공단의 실제 모습은 고즈넉하고 단아한 한옥촌에 웅장한 보호수와 잔잔한 호수가 있는 시골 마을이다. 시즌1의 토마스 역할을 하는 것은 보호수 옆에서 슈퍼를 운영하는 강선장(배우 이정은)이다. 3공단에는 보호수를 통해서 죽은 이들의 영혼이 마을에 도착하는데 그럴 때마다 강선장은 당황해하는 망자들을 위해 따뜻한 밥 한 끼를 지어 먹이며 살뜰히 보살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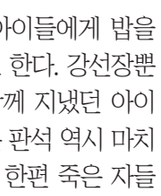
강선장과 함께 3공단을 이끌어 가는 인물은 3공단의 초등학교 교장 정영진(배우 정은표)이다. 그는 3공단에 학교를 세워 아이들을 보살피고 있는데 판석이 3공단을 볼 수 있게 된 것도 판석의 딸이 실종 상태에서 이곳에서 머문 인연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시즌2는 아이들이 다니는 초등학교를 3공단의 중심에 둠으로써 실종된 아이들에게 이야기의 초점을 맞춘다. 또 아이들에게 보다 집중함으로써 시즌1보다 훨씬 보살핌의 의미가 두드러지는데, 강선장을 여성으로 설정한 것도 그런 의미를 더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강선장은 끼니마다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고 간식을 만들어 주기도 한다. 강선장뿐만 아니라 3공단에서 딸과 함께 지냈던 아이들에게 딸의 물건을 전해 받은 판석 역시 마치 부모처럼 아이들을 보살핀다. 한편 죽은 자들은 3공단 밖으로 나갈 수 없음에도 어떤 이유로 자유로이 바깥세상을 드나들 수 있는 오일용과 김욱은 실종된 아이들의 사연을 좇으며 그들의 억울한 죽음에 얽힌 한을 풀어 주느라 고군분투한다.

드라마 '미씽 : 그들이 있었다'의 배경이 되는 두온마을이나 3공단은 육신을 잃어버린 죽은 이들의 영혼이 살고 있는 곳이니 정토는 아니다. 그러나 정토를 연상시키듯 아름답고 평화로운 마을이 유지될 수 있는 배경에는 무한한 애정으로 사람들을 보살피는 토마스나 강선장 같은 이들이 존재하기 때문일 것이다. 두 사람의 처지 또한 다른 마을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실종자들이지만, 이들은 마을의 모든 이들을 떠나보낼 때까지 마을에 남는 존재들이다. 그러니 이들을 자신들의 성불을 미루고 중생구제에 힘쓰고 계신 보살의 화신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삶과 죽음의 세계를 넘나드는 김욱과 장판석과 오일용이 마을 사람들과 아이들의 한을 풀기 위해 애쓰는 모습도 마찬가지다.

불교에는 죄를 짓고 벌을 받는 지옥 중생까지도 구제하리라 서원한 지장보살이 존재한다. 또 불국토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부처가 있는 곳이 정토라 했다. 그러니 비록 선업 공덕과 발원으로 아직 정토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보살과 다름없는 마음으로 두온마을과 3공단을 지키는 토마스와 강선장, 또 그들의 좌우보처가 되어 사람들을 돕는 김욱과 장판석과 오일용이 있는 세상이 정토가 아닐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바세계는 고통을 인내하는 세상이라고 한다. 2026년 새해가 밝았지만, 어제까지 있던 크고 작은 문제들이 한순간에 사라질 리 없으니 갖가지 어려움들을 이겨내며 또 한 해를 살아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 주변에는 나를 걱정하고 위로해 주며 내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그런 사람들이 내 곁에 있는 한, 지금 이 자리도 정토가 아닐까? 눈치채지 못할 뿐 어쩌면 우리는 이미 불보살님의 보살핌을 늘 받으며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보이지 않게 나를 지탱해 주는 내 옆의 누군가가 바로 관음보살이고 지장보살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자. 그러니 나도 누군가의 보살이 되어 그에게 정토 세계를 펼쳐 주자.



최원섭
대행선연구원 연구원



미씽 : 그들이 있었다(시즌1) 포스터.
사진 출처=OCN 공식 홈페이지



미씽 : 그들이 있었다(시즌2) 포스터.
사진 출처=tvN 공식 홈페이지



드라마 속 두온마을이 정토를 연상시키게 평화로울 수 있는 배경에는 사람들을 보살피는 강선장 같은 이들이 존재하기 때문일 것이다. 사진은 '미씽 : 그들이 있었다(시즌2)' 11화 비하인드 한 장면.
사진 출처=tvN 공식 홈페이지

